

보도 일시	2023. 3. 9.(목) 12:00			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서기관	고종신 (044-205-3552)

한국형(K) 주소, 국제사회로 나간다 - 3월 9일, 한국형(K)-주소 해외 진출 계획 발표 -

- 행정안전부는 3월 9일(금), ‘한국형(K)-주소 해외 진출 추진계획’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한국의 주소체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계획에서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주소의 ▲국제표준 반영 브랜드화, ▲해외 홍보, ▲해외 진출 기반마련, ▲국제협력 추진체계 확립, ▲종합 계획(마스터플랜) 준비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.
- 먼저, 한국형(K) 주소체계*를 국제표준에 반영하여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주소가 세계 각국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.
 -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제표준기구(ISO)의 기술위원회(TC211)에 참여하여 주소 국제표준(ISO 19160)반영을 논의해 왔다.
 - 오는 8월, 주소 국제표준 분과에서 한국형(K) 주소체계가 최종 반영**되면 한국형(K) 주소체계는 국제표준으로 인증 받고 세계 각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.
 -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* 건물(도로명주소), 시설물(사물주소), 공터(도로변 기초번호, 산악등 국가지점번호)
- ** 2023.1.16. 승인단계 종료, 공표단계를 거쳐 '23.8월경 국제표준(IS) 제정 예정
- 둘째, 한국형(K) 주소의 국제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.
 -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, ‘세계 주소 대회(콘퍼런스)’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형(K) 주소체계를 홍보한다.

- 아울러, 국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 공무원 초청 연수 시* 한국형(K) 주소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
* 라오스(3월), 인도네시아(5월), 키르기즈(7월), 베트남(7월), 파라과이(9월) 등

- 셋째, 주소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(K) 주소 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※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(건물, 사물, 공터),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(지상도로, 고가·지하도로, 내부도로), 점점의 위치 예측성(건물번호 × 10m = 해당 거리) 등

- 지난해 11월, 탄자니아, 에티오피아에서 주소를 관장하는 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주소체계 선진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.
- 올해는 탄자니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형(K) 주소체계를 탄자니아에 도입할 예정이다.

- 넷째, 오는 3월 16일 코이카 등 국제협력기구,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기업과 산업계, 국제표준과 주소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.

- 마지막으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국형(K) 주소의 해외 진출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을 발표한다.

- 종합계획에는 토지, 전자정부 분야 등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미 진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(K) 주소의 해외 진출과, 국제 주소의 유통 체계를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.
- 또한, 국내기업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진 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서비스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이 발표된다.

-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주소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실내내비게이션, 드론 배송 등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”이라면서 “주소가 완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나라에 한국형(K) 주소를 전파하고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늘려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추진방침

-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*에 반영하여 'K-주소'로 브랜드화하고 ODA 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

* 국제표준(ISO)에 사물주소, 공간주소 등 한국 주소체계 우수성 반영

-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단기로 이미 진출 분야와 연계해서 해외 진출 모델 개발

□ 추진계획

- ① **(K-주소 국제표준 반영 브랜드화)** 국제표준(ISO 19160-2)에 한국형 주소체계 반영('23.8월), 다른 국제표준 기구* 확대 및 국내표준 제정

*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(OGC), 「국제전기통신연합(ITU), 전기전자학회(IEEE) 등

- ② **(K-주소 해외 홍보)** '세계 주소 컨퍼런스' 개최(9월), 국외 배포용 콘텐츠 개발 홍보, 개도국 공무원 초청시 K-주소 교육*

* 라오스(3월), 인도네시아(5월), 키르기즈(7월), 베트남(7월), 파라과이(9월) 등

- ③ **(K-주소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)** 에티오피아·탄자니아 대상 협력 양해각서 체결('23.11월 예상) 추진 및 해당 국가 K-주소 적용 컨설팅 추진

- ④ **(K-주소 국제협력 추진체계 확립)** 국제협력기구(코이카 등), 기업(주소기반산업협회 등), 국제표준, 주소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(3월)

- ⑤ **(K-주소 해외 진출 마스터플랜 준비)** 토지분야 진출국 대상 ODA 사업* 및 국제 주소유통 사업 발굴 등 마스터플랜 수립 준비

* 기업 설명회(3월), 협력 가능국 발굴(6월), 사전 파일럿 및 파트너십 구축(연중)